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코로나19 상황이 선거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선거에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꿈틀거림이 감지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의 면면과 구도 및 관련포인트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 민주 공천장 누가 거머쥐나

광주광역시 출마예상자(정당순·가나다순)



## 광주시장

### '공천=당선' 이용섭 vs 강기정 '리턴매치'

#### 민형배·양향자 가세 전망...대선 최대 변수

내년 6월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 민주당 공천=당선' 구도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장을 누가 거머쥐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4~5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재선도전이 확실시되는 이용섭 시장에 맞서 지난 7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결선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민형배 양향자 국회의원의 재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다른때와 달리,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광주시장 경선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선 주자들을 놓고 출마 예정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써 시작된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 새 지도부가 확고히 한 10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25% 감점 조항도 경선 과정에서 박빙의 승부가 이뤄질 경우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 정국에 지방선거가 묻히다보면 정치 신인이 나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이용섭 광주시장은 높은 인지도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광주광역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똑심있게 해결하고 인공지능(AI) 중심도시와 광주형 뉴딜정책 등 광주

미래를 위한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시장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월 발표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광역시장 중 1위를 20여개월간 차지한 것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각종 현안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낮은 광주시 청렴도,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 지역 정치권과의 스킨십 부족 등은 이 시장의 리더십의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 공동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의 59%가 임기를 17개월여 남긴 '민선7기 이용섭호'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차기 시장의 재지지 의사에는 절반 가까이 (48%)가 '아니오'라고 답한 것은 이 같은 지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경선 패배를 딛고 재도전을 위해 '와신상담' 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3선 국회의원의 정치경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청와대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광주, 호남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무수석에 물러난 뒤 공화북한도시, H-way(수소길), 500만 경제공동체 등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이 수도권에 맞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을 제시 하는 등 '통근', '준비된' 시장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각오다.

'SK계(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강

전 수석은 최근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총리를 위해 비서실장을 맡으며 '의리맨'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광주시장 도전에 특이 필치 특이 필치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국회 안팎에서 보여준 학생운동권 출신의 과격하고 거친 이미지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이번에도 이 시장과 강 전 수석이 컷오프 등을 통과하고 경선전 막판까지 접전을 벌일 경우 '리턴매치'가 성사된다.

4년전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민형배 양향자 의원 역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지금도 시장 선거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다"는 말로 시장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미 두 의원 모두 특정 대권 주자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선 운동이 곧 시장 선거 운동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본선에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쓴맛을 본 정준호 변호사도 국회의원에서 시장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권에서는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각 정당에 시장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은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이 1일 출마선언을 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도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김영록 vs 與소속 의원 대결

전남도지사 출마예상자(가나다순)



## 전남도지사

### 이개호·서삼석·신정훈 등 몰망...출마 아직

#### 야당 중 진보당 민점기 위원 유일 출사표

#### 내년 대선 결과·여야 정국 등 변수될 전망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사 선거는 김영록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경쟁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5월 30일 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지역에서는 전남지사 후보로 군요 김 지사 외에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3선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무안군수 3선과 국회의원 재선의 서삼석 의원(영양·무안·신안), 나주시장 재선과 국회의원 재선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국회의원 재선인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후보군으로 몰망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피력하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인 데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보다 앞서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모두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원도 이낙연 캠프의 조직본부장으로서 대선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

의원 대부분이 "아직까지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재까지 전남지사 선거는 수면 아래 '정중동' 형국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 여부가 확

실치 않다. 야당 중 유일하게 진보당에서만 전남지사 출마를 표명했다. 2002년 공무원노조 초대 전남본부장을 역임한 군요 김 지사 외에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 지도위원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5·18 사적지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 공동대표,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등 평생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전념해 왔다.

민 지도위원은 시집 '나는 고향에 가서 달을 보았다'와 '초록세상으로'를 펴낸 시인이자.

이렇다 할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민선 7기 시작 이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선 도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 지사는 한 번도 2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도민들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 지사의 지지도는 두드러

진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6개월만인 2019년 1월 한국갤럽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12월 27~28일·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지사는 56.1%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1년여 만인 2020년 신년 여론조사(2019년 12월16~20일)에서는 68.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해 추석 여론조사(2020년 9월22~23일)에서도 63.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 신년 여론조사(2021년 2월4~5일)에서는 지지율 74.1%로 역대 여론조사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대선 결과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역에서 새판짜기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개호 의원의 출마 여부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적 생불과 같이 대선과 여야 간 정국 현안 등 다양한 변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어느정도 맞물려 가면서 전남지사 후보군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설용량 : 총 1.4MW
2. 사업개시 예정일 : 2021년 12월 ~ 2022년 6월
3.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1년 5월 24일 ~ 2021년 6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 한국광기술원 A1(본관) 7층 706호
5. 아래 주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및 시공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 본 공고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담당자 : 이성일 (HP: 010-2570-0365, lispower@hanmail.net)로 연락주시시오.

NO.	발전소 명	사업주 명	발전소 용량 (KW)	부지 면적 (평)	비 고
1	성일 태양광	이성일	99.9	300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116-1-3, 125-1-3, 129, 172, 173, 134, 131-1, 126, 128, 167, 127, 132)
2	성일2호 태양광	김양복	99.9	300	
3	성일3호 태양광	조근성	99.9	300	
4	대박2호 태양광	홍정하	99.9	300	
5	남경2호 태양광	김종호	99.9	320	
6	포인트 태양광	전은국	99.9	325	
7	봉황 1호 태양광	노경자	99.9	340	
8	봉황 2호 태양광	배오엽	99.9	322	
9	봉황 3호 태양광	매명근	99.9	334	
10	봉황 4호 태양광	장정아	99.9	348	
11	봉황 5호 태양광	김영석	99.9	360	
12	봉황 6호 태양광	김선진	99.9	328	
13	봉황 7호 태양광	심민호	99.9	331	
14	봉황 8호 태양광	나명수	99.9	320	
합 계			1,398.6	4,528	

목포시 공고 제2021-924호

## 목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목포시 연산동 산45-4번지 일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언산정근린공원 및 공원 내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

목 포 시 장

1. 주요내용  
가. 공고명 : 목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비치
2. 관계도서 : 경제 생활(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3. 열람기간 : 2021. 6. 1. ~ 2021. 6. 16. (15일간)
4. 열람장소 : 목포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공고(안)는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414) 및 공원녹지과(☎061-270-8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